

한국 현대시교육의 형성 과정 연구*

민재원** · 김창원***

< 차례 >

- I. 머리말
- II. ‘현대시’의 인식과 현대시교육의 전사(前史)
- III. 현대시교육의 정착 과정
- IV. 한국 현대시교육의 기층 논리
- 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 시문학사에서 근대성을 의식하고 ‘근대시/현대시’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1920년대에 와서이다. 물론 그 이전에 ‘신시(新詩)’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김안서, 주요한 등의 시적 노력이 있기도 했으나, 오늘날 쓰는 것과 같은 의미의 ‘현대시’ 개념이 정착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 공교육의 역사에서 19세기 중·후반까지의 시문학 교육은 엘리트 중심의 한시 교육이 거의 전부였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 20세기 초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A00245).

이 논문은 제48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1.4.9)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1저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cino21@snu.ac.kr)

*** 교신저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moonbee@naver.com)

에 급격하게 장르 교체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근/현대시’를 공교육에서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고민에 대한 대응은 광복 이후까지 미뤄지게 된다. 일차적인 이유는 물론 공교육이 식민지 체제로 전개되면서 자생적인 현대시교육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근대적인 교육 제도의 도입과 근/현대시의 발생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면서 양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현대시/현대문학이란, 식민지 시대의 대학·전문대학에서조차 뚜렷한 실체와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의 현대문학교육을 대부분 일본에서 공부한 외국문학 전공자들이 주도한 점도 이러한 정황을 방증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의 초기 현대시교육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성립됐는지, 그러한 초기 시교육의 철학과 체제가 이후의 시교육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를 살핌으로써 현대시교육의 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시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사를 얻는 것이다. 광복 이후 이데올로기적·미학적·교육적 구성물로서 현대시교육이 형성된 과정과 그 이면의 동인을 살펴봄으로써 전형적인 현대시교육의 개념을 재구하고 시교육의 가능역(可能域)을 확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시기적으로 식민지 시대에서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쳐 1차 교육과정에 의한 공식 교과서가 나오기 전까지, 학년 급은 중·고등학교, 자료는 해당 시기의 교과서 및 기타 문서 자료로 한정한다. 당시의 국어·문학·교육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그와 관련된 연구는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자연스럽게 연구 방법도 문서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시교육 형성기의 담론적 지향을 분석하고 그것이 교육의 실제(특히 교과서)로 구현된 양상을 살펴보는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Ⅱ. ‘현대시’의 인식과 현대시교육의 전사(前史)

1. ‘현대시’의 위상과 속성

우리는 편하게 ‘현대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현대시’의 정확한 개념이 확고하게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대략적인 범주만 설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그 내용은 ① 용어의 위상 정립에 대한 논의와 ②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의 속성에 대한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현대시’라는 용어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근대시’와 ‘현대시’를 구분하여 보다 세련된 형식과 내용을 보여주는 단계로서의 현대시를 상정하는 논의이다. 예를 들어 오세영 외(2007)는 갑오경장으로부터 1931년까지를 근대시의 형성기와 전개의 단계로, 1931년부터 광복까지를 현대시의 형성기로 보고 있다. 김재홍(1998) 역시 근대시를 현대시의 전개 이전의 과도기적 성격으로 보면서 근대시와 현대시를 엄밀하게 구별한다. 둘째, ‘근대시’와 ‘현대시’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면서 둘 사이에 뚜렷한 구분점을 설정하지 않는 논의이다. 예컨대 조창환(2010)은 현대시사의 기점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그 속성으로 ‘근대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고전에 대립되는 용어로서의 ‘현대’라는 개념 속에 포괄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셋째, ‘현대시’ 대신 ‘근대시’라는 용어를 통해 시사에 접근하는 논의이다. 김윤식(1992)은 시에 나타나는 근대성을 기준으로 시사를 논하면서, 시와 시인이 분리되는 기점을 ‘근대적인 것’의 한 모습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현대시’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의 속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창환(2010)은 근대적 자아의 확립과 예술적 자율성의 획득을, 김재홍(1998)은 외래의 영향, 자유로운 형식, 개인적 자아의 확립, 시적 방법론의 확립 등을 현대시

의 속성으로 지적한다. 또한 김재홍(1996)은 백철의 논의를 원용하면서 이미지즘·모더니즘의 특징을 현대시의 속성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대시’의 속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반면,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견해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대시의 속성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식의 발현, 형식에 대한 관심 등의 속성은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이를 현대시가 교육적으로 수용되는 현상에 대한 파악의 틀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일제강점기의 현대시교육에 대한 인식

순수하게 교육 제도의 측면에서만 보면, 일제강점기는 19세기 말부터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된 관립·사립 학교들이 ‘조선교육령’ 체제로 일원화되면서 국가 주도의 공교육이 정착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계 학교들을 예외로 친다면 초기의 근대적 학교들은 거의明治·大正 시대의 일본식 학교를 모델로 삼은 것들이었다. 특히 친일 성향의 김홍집 내각이 주도한 갑오개혁(1894~1896)을 통해 근대 교육이 확산되면서 교육 제도와 내용 면에서의 대일(對日) 상동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한국에서 이른바 ‘신시 운동’을 통해 초보적이거나 시의 근대성을 모색하던 시기가 한·일 병합 시기와 겹치고, 1920년대 중반 들어 우리가 카프와 모더니즘 시 운동 등을 통해 근대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할 때 이미 일본은 대정 데모크라시를 지나 파쇼화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교육 체제가 전반적으로 일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제강점기의 현대시교육은 근대성이라는 순정한 문학적·철학적 논의 대신 강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자장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시교육은 ‘현대시’라는 개념을 적용하기에 불충분해졌다. 시조를 제외하고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서 편찬

한 『조선어독본』 류에 수록된 시들을 살펴보면 보통학교 급에서는 수신 및 훈계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중등학교 급에서는 자연을 소재로 삼은 낭만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근대성에 입각한 현대시의 일반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 시기 작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훈계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을 경우에는 그 표현상의 특징에 따라 간접적인 훈계와 직접적인 훈계로 구분하였다).¹⁾

〈표 1.1〉 식민 초기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1911) 수록 작품

제목	내용	훈계	반복 수록				비고
			초기	1차	3차	4차	
紙鳶과 팽이	높이 나는 연과 빠르게 도는 팽이	간접	○	●			권5
驟雨	강한 비가 내리는 자연의 풍경		○	●			
時計	시계종의 반복과 하루의 일과	직접	○				
蝶	나비에 대한 애정과 걱정		○		●		권6
鐵歌	철의 단련	직접	○				
雨	비를 통해 바라보는 물의 순환		○	●			
移秧	모내기 of 바쁜 풍경	직접	○	●			권7
學界歌	금강석 연마와 학문예의 정진	직접	○	●	●	●	
漂衣	빨래하는 풍경과 다듬이질 소리	간접	○	●	●		권8

1) 여기서의 작품 목록은 강진호·허재영 편(2010)을 기본 자료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본 연구는 중등 교재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나, 여기서는 당시 이루어지던 시교육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초등 과정에 해당하는 보통학교의 교재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보통학교 고등과 조선어독본』 권1의 경우에는 발행 시기가 1925으로 되어 있어 3차교육령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선은 강진호·허재영 편(2010)의 정리에 맞추어 기타 시기로 분류하였다. 이 교재는 박봉배(1987a)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시기에 대한 구분 역시 두 연구가 조금 다른 관점을 보인다. 강진호·허재영 편(2010)의 경우에는 2차 조선교육령기를 1920. 11. 12.~1922. 2. 3.로 보고, 1922. 2. 4.부터 3차 조선교육령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봉배(1987a)의 경우에는 1920. 11. 12.에 공포된 조선교육령을 1차에 대한 수정안으로 보아 1922. 2. 4. 공포된 조선교육령을 2차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강진호·허재영 편(2010)의 구분을 따르기로 한다.

〈표 1.2〉 기타 시기 『보통학교 고등과 조선어독본』(1925) 수록 작품

제목	내용	훈계	반복 수록				비고
			초기	1차	3차	4차	
農家の滋味	농가의 생활과 안분지족	간접			○		권1
初生달	장차 광명의 사업을 이룰 초승달	간접			○		권2
原野의 算術	산술 개념을 통해 바라보는 계절의 변화				○		
歸省	고향 가는 길에서의 기대와 상상				○		
어머님 忌日	돌아가신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				○		

〈표 1.3〉 1차 교육령기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1915~1921) 수록 작품

제목	내용	훈계	반복 수록				비고
			초기	1차	3차	4차	
연과 팽이 노래	높이 나는 연과 빠르게 도는 팽이	간접	●	○			권2
驟雨의歌	강한 비가 내리는 자연의 풍경			○			
金剛石	금강석 연마와 학문의 정진	직접	●	○	●	●	권3
雨	비를 통해 바라보는 물의 순환		●	○			
移秧	모내기 of 바쁜 풍경	직접	●	○			권4
漂衣	빨래하는 풍경과 다듬이질 소리	간접	●	○	●		
四時景	사계절의 풍경과 인간의 교감			○			권5
師의恩	스승의 은혜와 입신을 통한 보은	직접		○	●		
春朝	봄 아침과 농가의 바쁜 모습	간접		○			권6
植松	나무와 인간의 성장	직접		○			

〈표 1.4〉 3차 교육령기 『보통학교 조선어독본』(1923~1924) 수록 작품

제목	내용	훈계	반복 수록				비고
			초기	1차	3차	4차	
팽이	쉬지 않고 도는 팽이	간접			○		권1
나비	나비에 대한 애정과 걱정		●		○		권3
달	달타령				○	●	권3
師의恩	스승의 은혜와 입신을 통한 보은	직접		●	○		권4
빨래	빨래하는 풍경과 다듬이질 소리	간접	●	●	○		권5
金剛石	금강석 연마와 학문의 정진	직접	●	●	○	●	권5
四節의 노래	사계절과 인간의 근면	직접			○		권6
七夕	견우 직녀의 만남과 근면	직접			○		권6
善友	좋은 벗의 가르침	직접			○		권6

〈표 1.5〉 3차 교육령기 『고등 조선어급한문독본』(1926) 수록 작품

제목	내용	훈계	반복 수록				비고
			초기	1차	3차	4차	
동무나비	비를 피하지 못하는 세 마리 나비				○		권5
비둘이편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				○		

〈표 1.6〉 4차 교육령기 『보통학교 조선어독본』(1931~1935) 수록 작품

제목	내용	훈계	반복 수록				비고
			초기	1차	3차	4차	
물방아	쉬지 않는 물방아	간접				○	권2
싸락눈	눈을 맞이하는 닭의 시선과 아이의 동심					○	
달	달타령				●	○	권3
자장歌	자장가(명명개야 짚지마라……)					○	
소	소의 희생과 인간이 배울 점	간접				○	권4
村婦歌	옷 만들기와 효심	간접				○	
夫餘	백제에 대한 회고						
漁夫歌	가업을 잇는 어부의 자부심과 기상	간접				○	권5
金剛石	금강석 연마와 학문에의 정진	직접	●	●	●	○	
機會의神	줍처럼 잡기 어려운 기회	직접				○	권6

〈표 1.7〉 4차 교육령기 『중등교육 조선어급한문독본』(1933~1937) 수록 작품

제목	내용	훈계	반복 수록				비고
			초기	1차	3차	4차	
빗소리	비 오는 풍경에 대한 정서					○	
元山의海邊	원산 해변의 풍경과 고독에 대한 낭만					○	
가을	가을 농촌의 풍경과 밭일을 하며 짓먹이는 어미					○	
공부의바다	끝없이 넓은 공부의 바다와 면학	직접				○	
물방아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하는 물방아	간접				○	
봄비	비와 함께 찾아오는 봄					○	
風景	서재의 테이블에서 독서하는 젊은이	간접				○	
새해에	앞길에 대한 새해의 다짐	직접				○	
풀밭	풀밭의 생명에서 느끼는 기운					○	
初秋	가을밤의 풍경에서 느끼는 감상과 적막					○	
山村暮景	산촌의 저녁 풍경					○	

일련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작품은 일제강점기를 관통하며 지속적으로 교과서에 실렸다. 「金剛石」 같은 작품이 그 보기로서, 금강석의 연마 과정처럼 사람도 부지런히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함을 설파하고 있다.²⁾ 이는 『조선어독본』 류의 교재가 가지는 시교육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그 형식이나 내용의 측면에서 약간의 변형을 보이기는 하지만 독본이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 외에도 자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들이 여럿 보이긴 하지만, 그러한 작품들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수신과 훈계의 주제로 수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중등학교 급의 독본에서는 「빛소리(주요한)」, 「산촌모경(백기만)」 등의 작품이 저자 표기가 생략된 채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은 자연 풍경에 대한 개인의 정서를 표출하는 데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당대에 우리 시사에서 논의되고 있던 현대시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공부의바다」, 「새해에」, 「풀밭」 같은 수신 지향적인 작품들³⁾이 보인다는 점에서, 시교육이 수신이나 훈육, 개인적 정서에의 집중이라는 목표를 향한 도구적 성격으로 사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시기 교과서에서 ‘현대시’를 뚜렷하게 의식하고 일정 시수를 안배했다는 흔적은 찾기 어렵다. 현대시 단원을 따로 설정하거나 새로운 시양식으로서 현대시 읽기를 요구하지 않았고, 당대의 현대시 현상을 비평

2) 식민 초기의 독본에서는 「學問歌」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원문은 다음과 같다. 金剛石이라도갈지안으면, / 燦爛한光彩는날수업도다. / 사람도學問을닦근後에야, / 眞實한德性이나타나리라. / 時計의바늘이間斷이업시 / 돌아감과갓치, 一分一秒의 / 光陰을앗기여 誠勤히하면, / 무슨事業인들成功못할가.

— 연습 : 본과를외여라.

3)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풀밭」의 원문만을 제시한다. 자연에 대한 서정적인 태도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수양과 관련된 주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봄날풀밭에누어서, / 눈감고조용이들으면, / 어디선가美妙한音樂이, / 하나도아니오여러이, / 數千數萬의숨소리가, / 귀를막어도울려오는 / 仙女의숨소리, / 四面으로서일어나서, / 내神經을震動합니다. / 그것은無數한生命이, / 깊은흙속에서때를세는, / 神秘的曲調입니다. / 시방그조용한곳에잇는힘을 / 나는들읍니다,말읍니다,만집니다. / 太陽과空氣가그힘으로 / 내靈魂을떡감읍니다.(10-11쪽)

적으로 바라보는 활동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임화 류의 전통단절론과 같은 역사적 원근법(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이 교과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당대의 시문학을 교육적으로 걸러서 재구성하기에는 시차(時差)가 너무 적고, 현대시교육은 물론이고 현대시 자체에 관한 이론도 아직 불완정하며, 교육을 위한 정전도 형성이 안 되어 있고, 현대시를 현대시로서 가르칠 교사도 전무했던 상황과 연관된다. 말하자면 일제강점기는 현대시교육을 논하기에는 현상 자체가 불투명한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의 교과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전의식(前意識) 상태에서 이루어지던 시교육의 흔적이 광복 이후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자 행위 중심의 시 읽기 방법, 서울 문단 중심의 강한(powerful) 텍스트 군, 수신(修身)과 자연으로 집중되는 소재와 주제, 내용 파악 중심의 학습 활동 등이 그것이다. 특히 시를 ‘국어(조선어)’ 과목에 포함시켜 다른 읽기 텍스트와 나란히 배열하는 방식은 현대시교육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시교육에 대한 위와 같은 일제강점기의 접근은 일반적인 교양의 추구라는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작품의 내용이 수신과 훈계로 집중되어 있는데, 수신(修身)은 동양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양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근대의 독서가 매뉴얼로의 성격(천정환, 2003 : 182-183)을 가진다고 할 때, 이러한 교양 지향성은 당시의 교육이 추구했던 양면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수신과 훈육의 목적을 위한 매뉴얼로서의 성격을 갖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비판적이고 실용적인 의식과 거리를 두게 하는 서정적 태도를 강조하는 것은 시교육에 관해 근대의 교육이 가진 양가적인 특징이 될 수 있다. ‘비생산적 유한계층’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피통치자이자 근면을 내재화해야 하는 식민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물리적으로 결합된 모습으로서의 ‘교양인’이 교육의 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양인의 상은 협소한 차원에서의 교양인에 불과하며 일제가 추구한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양인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반성적 사유를 배제시킨 교양인의 양성은

이후 현대시교육의 정착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게 된다.

Ⅲ. 현대시교육의 정착 과정

1. 해방 공간에서의 시교육 구축(構築)

자주적인 현대시교육은 광복과 함께 시작되는데, 교육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대시교육도 공교육이 안착되기 전까지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학술 단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것도 실제 교실까지 염두에 두기에는 무리였고, 아쉬운 대로 ‘우리말 우리글’ 중심의 교과서 편찬 정도까지 손을 댈 수 있을 뿐이었다. 한국 현대시를 제대로 공부한 교사도 없었고 공교육에서 그것을 가르쳐 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시교육의 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은 누가 언제 어떤 교과서들을 만들고, 거기서 문학/현대시 영역은 누가 담당했는가 하는 인적 변인이다. 소수 전문가가 급하게 새로운 교육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과서를 누가 만드는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⁴⁾ 시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추구하는 가치만 다를 뿐 교훈성과 자연 완상 중심의 시교육관은 일제강점기와 큰 차이가 없다.

광복 이후 처음 만드는 교과서에 민족의식과 교훈성이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보다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그런 상황에서 굳이 현대시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교과서 저자들의 문학관·교육관이다. 당대 일급의 국어학자와 문인들이 시를 보는 눈이 없다고 말하기는

4) 박봉배(1987a : 517-518)에 따르면 군정청 산하의 조선교육심의회 중 교과서를 맡은 제9분과의 위원은 최현배·장지영·조진만·조운제·피천득·황신덕,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교과서의 집필위원은 이희승·이승녕·정인승·장지영·윤재천·이호성·방중현·이태종·윤복영·윤성용, 심의위원은 조운제·최현배·이극로·김윤경·김병제·이은상·이세정·양주동·주재중·조병희이다.

어려울 텐데, 그들은 왜 그렇게 단일한 경향의 시들을 실으면서도 어쨌든 현대시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시교육에 대한 초기 전문가들의 관점은 시가 개인의 정체성 및 정서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현대시’, 혹은 ‘근대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김기림은 1946년 2월 8일의 ‘전국문학자대회’에서 시가 전진하는 자유를 확보한, 새 공화국을 이끌어 갈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서 ‘당대의 모더니스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현대시교육과 관련하여 정전이 형성·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광복 직후의 교과서에서 ‘현대시’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예술’에 대한 개념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요컨대 작가가 묘사한 사상(事象)은 상징임으로 해서, 그것에서 받는 감명(感銘)에 의하여, 독자는 자기의 내적(內的) 생명에 점화(點火)하여, 스스로 타오르는 것이다. 환언하면 자기의 체험 내용을 그것에 의하여 발견하여, 창작가와 동일한 심경에 미도(味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체험 내용을 일우고 있는 것은 작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고(人間苦)요, 사회고(社會苦)가 아닐 수 없다. 이 고민(苦悶), 이 심적(心的) 상해(傷害)가 감상자의 무의식(無意識) 심리(心理) 중에도 역시 침재(沈滓)로서 복재(伏在)하여 있었음으로 해서 완전한 감상 즉 생명의 공명 공감이 거기에 성립되는 것이다.”

— 조선어학회, 『중등국어교본(하)』,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7, 16-17쪽.

이에 따르면 독자는 예술 작품에서 얻은 감명을 통해 “창작가와 동일한 심경에 미도”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인간고이자 사회고’이다. 작가와 독자의 고민이 작품을 통해 만남으로써 “완전한 감상 즉 생명의 공명 공감”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아와 세계의 비판적 인식이다. 그러면 이러한 예술관/시관이 교육에 그대로 투사되었는가.

먼저 ‘교수요목’을 보자.

중학교 교수요목(1947. 9. 1. 미군정청 편수국)

(一) 교수 요지

국어를 잘 알고 잘 쓰게 하며, 우리의 문화를 이어 확충 창조하게 하고, 겸하여 지덕(知德)을 열어 건전한 국민정신을 기르기로 요지를 삼음.

(二) 교수 방침

(ㄴ) 국어 국문의 전통과 그 표현을 이해하게 하고, 국어 국문의 사적(史的) 발달을 구명하여, 종래의 사상 문화의 연원과 발달을 자세히 알려, 국민정신을 기르고, 우리 문화를 창조 확충하게 하는 신념을 배양함.

(ㄷ) 국어 국문을 통하여 덕육, 지육, 체육 등의 정신과 식견을 길러, 건전한 중견국민의 사명을 스스로 깨닫게 함.

(三) 교수 사항

1 읽기 (중략) 실천 근로 문예 등을 즐기고, 심신을 건전하게 하여, (하략)

6 국문학사 국문학의 사적 발달의 개요를 가르쳐, 국민의 특성과 고유문화의 유래를 밝히, 문화사상에의 우리 고전(古典)의 지위와 가치를 알림.

교수요목이 지닌 교육철학적, 교육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접기로 하자.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문학교육에 대한 교수요목의 관점이다. 그것은 ‘교수 방침’의 (ㄴ) 항목과 ‘교수 사항’의 6번 항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광복 후 초기 시교육을 구축한 전문가들은 문학교육의 초점을 ‘전통, 사상, 문화, 고전’에 두었고,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문학사에서 찾은 것이다. 여기에 길게 잡아야 50년이 안 되고 엄밀하게 따지면 채 한 세대가 지나지 않은 ‘현대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매우 좁다.

자연히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광복 이후의 국어교육에서도 현대시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민족적인 통합을 위한 개념들로 ‘국민정신’, ‘중견국민’ 등이 사용되면서 이를 위한 제재로 시가 사용되었고, 그 가운데 당대 시인들의 작품들이 수록되었던 정도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즉, 시가 먼저 있고 그것을 교육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을 길러내는 데에 시가 활용되는 국면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전제 위에 다음 표를 보자.

〈표 2〉 해방기(해방~정부 수립)의 교과서 수록 작품

연번	수록 교재	제재번호	제목	익힘	시인
1	중등국어교본(상)	7	비스소리	0	(주요한)
2	중등국어교본(상)	14	나막신		이병철
3	중등국어교본(상)	16	비 갠 여름 아침		김광섭
4	중등국어교본(상)	16	복종		한용운
5	중등국어교본(상)	19	파초		김동명
6	중등국어교본(상)	19	난초		정지용
7	중등국어교본(상)	30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8	중등국어교본(상)	30	경이	0	조명희
9	중등국어교본(상)	36	바다		김동명
10	중등국어교본(상)	47	향수		김기림
11	중등국어교본(상)	47	벗들이여		변영로
12	중등국어교본(상)	50	우리 오빠와 화로	0	임화
13	중등국어교본(중)	23	마음		김광섭
14	중등국어교본(중)	30	산촌모경		(백기만)
15	중등국어교본(중)	32	선구자		양주동
16	중등국어교본(하)	1	그대들 돌아오시니		정지용
17	중등국어교본(하)	10	석탑의 노래		오정환
18	중등국어교본(하)	15	초혼		김소월
19	중등국어교본(하)	20	마음의 태양		조지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광복과 함께 교재에 수록된 작품이 대폭 변경되었다. 주요한의 「비스소리」와 백기만의 「산촌모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로 수록된 작품들이며, 『조선어독본』 류의 교재와는 달리 작가를 명기하는 것이 대세다.⁵⁾ 또한 다른 산문 제재와는 달리 일제강점기의 독본에 수록된 작품과는 두 편만 겹치는 모습을 보인다.⁶⁾ 교재에 수록된 19편의 작품들은 주로 민족의 아픔이나 해방의 감격을 노래한 작품이나 자연과의 교감을 나타내고 있다. 임화의 「우리 오빠와 화로」의 경우가 다소 생소하게

5) 그러나 정작 연이어 수록되고 있는 두 작품-「비스소리」와 「산촌모경」에 대해 『중등국어교본』에서는 작가를 밝히지 않고 있다.

6) 이에 대해 정리는 허재영(2009 : 324-327)을 참고할 수 있다.

느껴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반일 감정의 확인이라는 분석(남민우, 2005)이 타당해 보인다. 자유로운 정신으로서의 시를 주창했던 모더니즘 시인 김기림의 경우에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 이 시기 국어 교육이 바라보는 현대시는 민족적 정서를 표방하거나 자연에 대한 예찬을 나타내는 매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제재별로 <익힘> 활동을 살펴보자.

-「비소리」

ㄱ. 이 비는 어느 절기에 오는 빗가?

ㄴ. 시(詩)와 산문(散文)이 어떻게 다른가?

ㄷ. “남모를 기쁜 소식”이란 건 무엇을 말함인가?

-「경이」: “우주가 새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합니다”를 설명하라.

-「우리 오빠와 화로」: 이 노래를 보고 느낀 바를 말하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산문 제재들에 비해 <익힘> 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봉배(1987b: 132)는 “1947~1948년 ‘중등 국어’에서는 단원별로 4~5개 항의 ‘익힘’ 난을 설정했”다고 하였으나, 현대시 제재들을 다루는 단원들에 대해서는 <익힘> 활동이 없거나, 있더라도 1~3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익힘> 활동들에서는 한 구절을 설명하라거나, 그 느낌을 이야기하라는 정도가 시를 읽고 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의 전부임을 알 수 있다. 설명의 방법이나 느낌이 형성되고 수정되는 과정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시들을 읽고 나서의 효과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관점이 투영된 것으로, 그 주변에는 시를 쓰고 읽는 활동에 대한 신비주의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시들을 읽고 나서의 효과는 굳이 확

7) 자체의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기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이 강하다는 의미로 ‘매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인할 필요가 없다는 의식이 투영된 것으로, 여기서의 제재들은 학습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추측 또한 가능하다. 두 관점 모두 현대시를 읽는 것 그 자체를 현대시 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시를 읽는 행위는 자동적으로 정서의 순화나 민족의식의 고취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념 또한 그 배경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민우(2005 : 285-288)는 이 시기의 현대시 수록 작품을 분석하면서 그것들이 진혼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당시의 교재에는 풍자문학 작품도 자기 비판의 작품도 없었던 것이다. 사회의 불안정은 한국 ‘문학’을 가르치기보다는 ‘한국’ 문학을 가르치기에 급급한 모습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병철, 정지용, 조명희, 김기림, 임화, 오장환 등 좌익 계열 작가들의 작품이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 임화의 작품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순수 서정’적인 내용으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⁸⁾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순수 서정’의 태도는 곧 민족적 혹은 국민적 합일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수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시교육이 식민지 건설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광복 후의 시교육은 탈식민지인으로서의 ‘국민’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 정서의 함양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양쪽 모두 일부에 국한된 목적의식에 경도되어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교육 내용으로서의 한국 현대시가 정립되기도 전에 현대시는 그 근대적인 인식과는 무관하게 정서 순화 및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한 수단으로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2. 남북 문단의 재편과 시교육의 재구성

1948년 8월 정부가 수립되고 문교부는 『중등 국어 1』에 이어 『중등

8) 김양선(2011)은 이 시기 교과서에 수록된 좌익계열 작가의 작품이 변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국어 2·3』을 발간했다. 또한 1950년부터는 종래의 3권 체제를 6권 체제로 바꾸어 발간하기 시작하였다.⁹⁾ 전체적인 교재 구성의 방식은 이전의 『중등국어교본 상·중·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수록된 작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시는 『중등국어교본』에도 수록된 작품이다.)

〈표 3.1〉 정부수립기(1948~한국전쟁)의 교과서 수록 작품

연번	수료교재	제재번호	작품	익힘	시인
1	중등국어1	4	복종*		한용운
2	중등국어1	4	나막신*		이병철
3	중등국어1	9	장날		노천명
4	중등국어1	9	산수도	0	신석정
5	중등국어1	24	봄	0	김기림
6	중등국어1	35	벗들이여*		변영로
7	중등국어1	35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8	중등국어1	41	바다*		김동명
9	중등국어1	47	비 갠 여름 아침*		김광섭
10	중등국어2	4	기회	0	김소월
11	중등국어2	4	산유화	0	김소월
12	중등국어2	9	선구자		양주동
13	중등국어2	23	춘설		정지용
14	중등국어2	29	들길에 서서		신석정
15	중등국어2	31	고향		정지용
16	중등국어2	37	탱자		박종화
17	중등국어3	7	마음의 태양*	0	조지훈
18	중등국어3	7	돌	0	신석정
19	중등국어3	24	못	0	김기림
20	중등국어 I	3	나무		한혹구
21	중등국어 I	17	해바라기		윤근강
22	중등국어 I	27	벗들이여*		변영로
23	중등국어 II	14	겨레의 새해		김영랑
24	중등국어 II	15	들길에 서서		신석정

9) 본 연구에서 확보한 자료는 『중등국어1·2·3』과 『중등국어 I~V』까지이다.

연번	수록교재	제재번호	작품	익힘	시인
25	중등국어Ⅱ	16	민족의 축전		김광섭
26	중등국어Ⅲ	20	씨 뿌리는 사람		빅토르위고
27	중등국어Ⅲ	21	마음의 태양*		조지훈
28	중등국어Ⅳ	2	해방의 노래		김광섭
29	중등국어Ⅳ	5	국화 옆에서		서정주
30	중등국어Ⅳ	6	승무		조지훈
31	중등국어Ⅴ	5	청자부		박종화
32	중등국어Ⅴ	11	해		박두진

이 표를 바탕으로 볼 때, 문교부에서 발간한 중등 국어 교재에 수록된 작품은 모두 29편이다.¹⁰⁾ 이 제재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현대시 교육 역시 기본적으로는 자연과 민족을 기본적인 정서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전 시기에서 잠시 모습을 보였던 임화의 작품은 수록되지 않았다. 김영랑의 「겨레의 새해」나 김광섭의 「민족의 축전」, 「해방의 노래」와 같은 경우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친화력을, 윤근강의 「해바라기」, 변영로의 「벗들이여」,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 등의 작품들은 삶과 자연에 대한 친화력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유기체적인 시관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부정의 논리(김윤식, 1992 : 26)가 깃들어 있지 않은 이상 그것은 여전히 세계에 대한 자아의 동화(同化)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동화의 정서가 서정 장르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하지만, 여기에서의 작품들이 형식적인 면에서의 자유로움만 제외하고 나면 지나치게 동화의 정서를 강조한 나머지 개인의 의식으로 대표되는 근대성을 확보한 작품들이 수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시적 대상에 대한 치밀한 사고 및 분석보다는 추수·찬양적인 태도가 일관되어 있다는 점 또한 그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보다는 세계와의 융화와 그 안에서 겪게 되

10) 아라비아 숫자본의 교재와 로마자 숫자본의 교재에서 중복되는 경우는 1편으로 처리하였다.

는 주체의 정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전 시기에 가까스로 수록되었던 임화의 「우리 오빠와 화로」와 같은 작품은 다시 제외되기도 하였다. 이는 정부의 수립과 함께 좌우 노선의 대립이 극명해진 것과도 그 흐름을 같이 한다(남민우, 2005).

이전 시기의 교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익힘> 활동은 활발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음의 경우에만 그치고 있을 뿐이다.

- 「산수도」
 - ㄱ. 이 시에서 어느 귀절을 가장 재미스럽다고 생각하는가?
 - ㄴ. 시와 산문이 무엇이 다른가?
- 「봄」(동일한 제목의 현대 시조 두 편(이병기, 이은상)과 같이 제시)
 - ㄱ. 이상의 세 노래가 다 같은 형식인가?
 - ㄴ. 세 노래의 제목은 다 봄이면서 각기 무엇을 말한 것인가?
- 「기회」와 「산유화」
 - ㄱ. 강 위에 놓인 다리를 건느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 ㄴ. 새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여 보라. 어떤 느낌을 받는지.....11)
- 「마음의 태양」과 「돌」: 이 두 시는 각각 무엇을 노래한 것인가? 간단히 말하여 보라.
- 「꽃」: 이 시를 읽고, 느끼는 바를 말해 보라. 그러한 느낌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몇 개 들어 보라.

여기에 다음과 같은 서술이 교재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시를 포함한 예술을 국어교육에서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작가가 자기의 생명을 상징에 의하여 표현하였다 하면, 이 상징을 통하여 독자도 역시 자기의 흥중에 창작을 하는 것이다. 작자 편이 산출적(産出的) 창작을 한다 하면, 독자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또한 공명적 창작을 하는 것이다. -『중등국어V』, 93쪽.

위의 내용은 조선어학회가 편찬한 『중등국어교본』에도 수록되었던 글의 일부로, 독자 또한 일종의 ‘창작’을 하는 주체라고 보는 관점의 제시는 일견 수용미학이나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시 읽기를 함축하는 것으로

11) 여기서의 말줄임표 길이는 실제 교재의 길이와 유사하게 작성하였다.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의 결과는 또 다시 “창작가와 동일한 심경에 미도(『중등국어Ⅴ』, 95쪽)”하는 것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한다. 독자가 아무리 자유롭게 작품을 읽더라도 그 귀결점은 자연에 대한 예찬이나 민족 국가 의식의 고취로 모아지게 됨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등국어4』에 실려 있는 <시인의 사명>이라는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평화로운 시대에 있어서 시인(詩人)의 존재(存在)는 가장 비싼 문화(文化)의 장식(裝飾)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인이 처(處)하여 있는 국가가 비운(悲運)에 빠졌거나 통일(統一)을 잃었거나 하는 때에 있어서, 시인은 그 비싼 문화의 장식(裝飾)에서 떠나, 혹은 예언자(豫言者)로, 또는 민족혼(民族魂)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적(先驅者的) 지위(地位)에 놓여 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현규, 「시인의 사명」, 문교부 편, 『중등국어Ⅳ』, 조선교육도서주식회사, 1949, 1쪽.

이 시기에는 문교부 이외에도 개인 저자들이 발간한 교재도 확인할 수 있다. 김병제는 『신편중등국어 1·2·3』을, 이병기는 『중등국어 1~6』을, 조지훈은 『고등국어』를 발간하였으며, 각 교재에 수록된 작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3.2〉 정부수립기의 민간 발간 교과서 수록 작품

수록 교재	제재번호	작품	시인
신편중등국어1	2	집	권환
신편중등국어1	9	가을밤	박아지
신편중등국어1	15	고향	정지용
신편중등국어1	25	봄	박팔양
신편중등국어1	36	가뭄아	이은상
신편중등국어1	40	박꽃	이희승
신편중등국어2	1	우리들의 팔월로 돌아가자	김기림
신편중등국어2	6	달밤	윤근강
신편중등국어2	11	샘물	설정식
신편중등국어2	22	봄의 선구자	박팔양
신편중등국어3	3	조국	김광섭

수록 교재	제재번호	작품	시인
신편중등국어3	8	들	임화
신편중등국어3	22	홀륭한 새벽이여, 오늘은 그 푸른 하늘을 찾으려 갑시다.	신석정
신편중등국어3	28	바다의 여인	조벽암
(이병기편)중등국어1	1	팔월	박종화
(이병기편)중등국어1	19	보슬비	김억
(이병기편)중등국어2	9	봄비	변영로
(이병기편)중등국어2	20	마음	김광섭
(이병기편)중등국어3	1	새벽이여	신석정
(이병기편)중등국어3	3	조국	김광섭
(이병기편)중등국어3	21	귀축도	서정주
(이병기편)중등국어4	8	윤봉길 의사	서정주
(이병기편)중등국어4	16	산촌모경	(백기만)
(이병기편)중등국어4	23	(제목 표기 없음-내 고향은……)	김억
(이병기편)중등국어4	23	밤호수	모운숙
(이병기편)중등국어4	23	장미	
(이병기편)중등국어5	3	마음의 태양	조지훈
(이병기편)중등국어5	26	해방의 노래	김광섭
고등국어2	5	삭주 구성	김소월
고등국어2	5	산	김소월
고등국어2	8	이니쓰프라이	에이츠
고등국어2	8	하늘의 웃감	에이츠
고등국어2	15	청산도	박두진
고등국어2	15	해	박두진

이를 종합하면 정부 수립 이후 발간된 국어과 교재들에 수록된 작품은 모두 48편으로, 이 가운데 김광섭의 「마음」, 조지훈의 「마음의 태양」, 변영로의 「벗들이여」, 백기만의 「산촌모경」, 양주동의 「선구자」 등 5편의 작품은 해방 공간에 발간된 교재에도 수록되었던 작품이다. 임화의 「우리 오빠와 화로」가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된 이후 『신편중등국어』에는 임화의 「들」이 수록되었다는 점이 특이한 사항으로 보이며 그 이외의 작품들은 문교부에서 발간한 교재나 개별적으로 편찬한 교재가 비슷한 성격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별적으로 편찬한 교재들이 보다 다양한 작가군을 포함하고 있다는 정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그런데, 개인들이 편찬한 교재들 가운데 조지훈의 『고등국어』에서는 예술에 대한 접근이 문교부 본 교재와 차이를 보인다.

“영원한 예술 작품은 일시적 환경의 실용적 관심을 초월하여서 오직 무관심적이라야만 될 것이다.”—안호상, 「예술미란 무엇인가」, 조지훈 편, 『고등국어2』, 한길사, 1949, 82쪽.

앞에서 살핀 『중등국어』에서의 예술에 대한 감상이나 시인의 사명과 비교해 볼 때 무관심적인 태도가 예술적인 공명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 ‘문화의 장식’이야말로 무관심적인 태도와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등국어』에서의 글들이 정서적인 반응에 보다 초점을 둔 반면, 조지훈의 『고등국어』에서의 예술은 ‘무관심적인 관심’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조지훈의 개인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당대의 ‘정치적 문학’에 대한 경계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하다. 동일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다음의 글은 이러한 견해를 보다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문학과 정치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동시에 완전히 절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치와 문학의 관계는 긴밀한 것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예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략) 오늘날 일부 정치주의 문학도들에게 있어서는, 정치 의식이 그대로 문학 의식으로 대치되어 있으며, 또 이것이 가장 진보적인 문학 사상인 줄 오해하고 있으나, 이러한 왜곡(歪曲)된 견해는 멀지 않은 장래에 그들 자신에 의하여 비판되고 회개될 날이 올 것이다.”—김동리, 「문학과 정치」, 조지훈 편, 앞의 책, 62-67쪽.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이데올로기 대립의 격화 및 체제 분단과 함께 남북 문단이 재편이 시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양상이다. 대체로 문학사의 전개와 문학교육사의 전개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생기는데, 이 시기는 그 시차가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물론 현대시와 현

대시교육의 역사 자체가 짧기 때문이다. 남북 문단이 재편된 결과는 표면적으로 수록 작품의 변화로 나타나지만, 그 이면에서 문학과 문학교육의 필요성 및 기능, 지향점에 관한 점진적인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훗날 이른바 ‘문협 정통파’로 일컬어지는 문필가협회와 청년문학가협회의 이념과 문학관을 교과서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로써 ‘현대시 40년’의 총체성은 위축되고 선별에 의한 시교육의 재구성이 일어난다. 이 ‘선별’은 이데올로기뿐 아니라 미학도 포함하는 전면적인 선별이다.

3. 한국전쟁에 대한 시교육의 대응

한국전쟁 발발부터 1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나오기 전까지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전체 작품은 24편, 외국 작가의 작품을 제외하면 21편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작품 수가 상당히 줄어든다. 이것은 전쟁 이전에 비해 교재의 면수가 줄어든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 작품의 수용이 이전에 비해 늘어난 것을 볼 때 수록하기에 적절한 국내 작품을 찾지 못한 데에도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에는 중군문단이 당시 한국의 문단 전체를 의미할 정도로 큰 비중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임도한, 2004 : 177)은 이에 대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두 가지 구성 방식의 교재를 확인할 수 있다. 시기 상으로 먼저 발간된 『중등 국어』 류의 교재는 이전의 제재 나열식 구성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중학 국어』 류의 교재는 대단원이 설정되고 그에 알맞은 제재들이 하위 단원의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재의 구성 자체가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실상 수록 작품들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 시기에 발간된 교재에 수록된 작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수록 교재보다는 작품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정리하였으며 교재에 별다른 <억힘> 활동은 제시되지 않았다.

〈표 4.1〉 한국전쟁기(한국전쟁~1차 교육과정 이전)의 교과서 수록 작품

교재	제재번호	제목	시인
중등국어1-1	7	나무	한혹구
중학국어1-1	14		
중등국어1-1	19	해바라기	윤근강
중학국어1-1	11		
중등국어2-2	10	마음	김광섭
중학국어2-1	4		
고등국어1	14	해방의 노래	
중등국어2-2	10	청노루	박목월
중학국어2-1	1		
중등국어2-2	10	하늘	박두진
중학국어2-1	2		
고등국어2	20		
중등국어2-2	10	원수의 피로 씻은 지역	유치환
중학국어2-1	5		
중등국어3-1	4	논개	변영로
중학국어3-2	23		
중등국어3-1	14	씨 뿌리는 시절 저녁	빅토르위고
중등국어3-1	14	내 귀는	장 곡도
중등국어3-1	14	가을 노래	폴 베를렌
중등국어3-1	14	석류	폴 발레리
중등국어3-2	1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윤숙
중학국어1-2	22	조국에 바치는 노래	이은상
중학국어2-1	3	빛을 찾아 가는 길	조지훈
고등국어1	16	승무	
중학국어2-2	-	-	-
고등국어1	5	금전디	김소월
고등국어1	5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고등국어1	5	산유화	김소월
고등국어1	5	산	김소월
고등국어1	7	모란	김영랑
고등국어1	24	국화 옆에서	서정주
고등국어2	15	청자부	박종화
고등국어3	-	-	-

유치환의 「원수의 피로 씻는 지역」, 모운숙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이은상의 「조국에 바치는 노래」는 당시 전쟁 상황의 맥락이 현대시교육에 투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의 현대시교육에서 전쟁에 대한 대응이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자연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는 작품들이 다수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 국어』의 경우에는 전쟁과 관련된 작품이 한 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이라는 당대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소위 말하는 ‘순수 서정시’ 계열의 작품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는 특징은 정전 체계의 형성에 관한 연구(정재찬, 1996)에서 확인되는 이중적인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교재의 내용이 전시 체제 속으로 함몰되지만은 않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모습이 전쟁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함몰되지 않은 표면적인 모습 이면에는 그 사이에서 배제된 담론에 대한 감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도한(2004 : 175)은 전쟁문학 작품이 펼치는 스펙트럼의 양 끝을 전쟁 수행에 동참하는 의도가 강한 경향과 전쟁의 부조리함을 비판하며 휴머니즘을 내세우는 경향으로 보고 있다. 이 양 극단을 오가는 스펙트럼 속에서 당시의 교재가 채택한 작품들이 전자의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서동수(2006)는 한국전쟁기의 문학담론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기 고백과 그를 통한 자아 정체성의 획득으로 이어지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쟁과 관련된 반공의 담론은 “논리가 아닌 감정의 차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작품들이 추구하는 바가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적대감”에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개심이었고 그것은 곧 감정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그의 논의를 참고할 때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이 보이는 전쟁 중심과 자연 예찬 중심의 이중적인 구도는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 대한 주체의 감정적 대응이다. 이는 김윤식(1992)이 언급한 근대 시기의 ‘심혼시’나 ‘유기체적 시관’과도 연결되며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나 대응보다는 세계와의 합일, 여기

에 방향성을 노출시키는 표현을 쓴다면 특정 세계로의 편입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로부터 ‘1차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공식 교육과정기로 이행하게 되는데, 광복 이후 10여 년에 걸친 역사·사회적 경험과 문학적 모색이 어떠한 온축 과정을 거쳐서 공식 교육과정화하는지를 살핌으로써 한국 현대시교육의 출발점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IV. 한국 현대시교육의 기층 논리

개화기는 물론이고, 일제강점기의 시교육은 대체로 교육의 장(場)보다 문단·비평계·언론 등에서 맵이를 찾을 수 있다. 이제 막 근대성에 눈을 뜨면서 ‘현대 자유시’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가는 와중에, 게다가 공교육은 식민 당국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시교육에까지 눈을 돌릴 여유는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 한시를 포함한 한문교육의 전통과 19세기 말부터 도입된 일본식 교육 체제, 그리고 근대 지향적인 사회·교육 운동가와 국어학자·시인들이 현대시교육의 전사(前史)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현대시교육사에 대한 이해는 개별 문학으로서의 ‘영문학’을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영문학교육의 역사와는 분명 다른 논리와 철학을 필요로 한다. (한국문학은 ‘한국어’가 워낙 도드라지기 때문에 ‘脫漢文學’이면 대체로 민족문학으로서 인정되었다.) 또한 교육에 비해 실제성이 다소 덜하다고 여겨지는 시사(詩史)의 전개와도 다른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왜곡된 근대사에서 모더니즘이나 『시문학』 류의 순수시 운동은 역사·사회 의식의 또 다른 형태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식민지의 학생들에게 모더니즘과 순수시를 가르치는 것은 그런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일제강점기 시교육은 끊임없이 ‘조선교육령’으로 대표되는 식민 당국의 교육적 간섭을 받아야 했다.

이런저런 점을 고려해 보면, 수신(修身)과 자연, 고전 지향 등으로 요약

되는 일제강점기의 시교육 논리는 세 층위의 담론이 중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근대의 논리를 어떻게든 문학교육에 투입해 보고자 하는 시도. 하지만 이 시도는 시사(詩史) 자체의 연륜이 낮고 역량이 부족해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문학이 지닌 윤리적·정서적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 이는 기실 한문학 시대의 전통을 이은 것이자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독특하게 발달한 것으로, 시의 주제와 인간·사회·역사관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식민당국이 위로부터 내리누르는 이데올로기와 그에 대한(어떤 방향이든) 반작용으로서 아래로부터 반응하는 이데올로기의 길항. 그 결과는 일방적인 식민 담론의 강요나 민족 담론의 반발이 아닌 개인 차원의 수신과 자연 정서 쪽으로 시교육의 물꼬를 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부 논리가 근대적인 학교의 외장을 씌으로써 광복 후 시교육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초기 시교육의 형성 과정이다.

여기에 정전 논의와 동양적 문인주의를 첨가하면 반식민주의, 순문학주의, 전통·자연 지향성, 문학의 교훈적 성격(“문학으로써 ~ 한다.”) 강조, 국어과 내에서 문학과 언어 기능의 분리, 형식에 대한 내용(주제·소재·정서 등) 우선주의(감동은 대체로 내용에서 온다!), 교양주의(“교양인이라면 모름지기 문학을 알아야 한다.”), 단형 서정시 치중, 민요·대중시 등과의 분리, 등단 제도화 및 ‘시인=기인’의 이미지 등이 유도돼 나오고, 이것이 그대로 한국 현대시교육의 중심(縱深)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현대시교육의 기층 구조는 어느 면에서는 탄탄하게 다져진 모습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아무런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는 수록된 작품의 작가를 중심으로 다시 자료를 정리했을 때 더욱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¹²⁾

12) 여기서는 문교부에서 발간한 교재에 수록된 국내 시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5.1〉 현대시교육 형성기의 교과서 수록 작품

작가	작품	해방기	정부수립기	한국전쟁기	작가	작품	해방기	정부수립기	한국전쟁기
김광섭*	마음	●		●	변영로	벗들이여	●	●	
	민족의 축전		●			논개			●
	비 갠 여름 아침	●	●		서정주*	국화 옆에서		●	●
	해방의 노래		●	●		돌		●	
김기림	향수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봄		●			산수도		●	
	못		●		양주동*	선구자	●	●	
김동명	파초	●			오장환	석탑의 노래	●		
	바다	●	●		유치환*	원수의 피로 씻은 지역			●
김소월	초혼	●			윤곤강	해바라기		●	●
	금잔디		●		이병철	나막신	●	●	
	기회		●		이은상	조국에 바치는 노래			●
	산유화		●	●	임화	우리 오빠와 화로	●		
	산			●	정지용	난초	●		
	엄마야 누나야	●	●	●		그대들 돌아오시니	●		
김영랑	겨레의 새해		●		정지용	고향		●	
	모란			●		춘설		●	
노천명	장날		●		조명희	경이	●		
모윤숙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	조지훈*	마음의 태양	●	●	
박두진*	해		●	●		빛을 찾아 가는 길			●
	하늘			●		승무		●	●
박목월*	청노루			●	주요한	비사소리	●		
박종화*	탱자		●		한용운	복종	●	●	
	청자부		●	●	한혹구	나무		●	●

앞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의 교재에 모두 작품이 수록된 작가는 김광섭, 김소월, 변영로, 조지훈에 그친다. 실상 이 기간이 채 10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대시교육이 시인과 작품을 선별하는 데에 있어서 양면적인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가정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의 기준은 국가적인 통합을 추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수록 작가는 전조선문필가협회 및 그 하위 조직으로 발족된 조선청년문학가협회에 참여한 시인들¹³⁾이 두드러지며, 이들의 작품은 정부 수립기에 이어 전쟁기까지도 지속적으로 교재에 수록되는 모습을 보인다. 해방 직후는 시집 및 잡지의 발간을 포함한 창작 활동이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이기도 한데(오세영 외, 2007 : 214-219), 새로운 시에 대한 모색을 보여준 김수영이나 김춘수의 작품은 교재에 수록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논리나 비판적 사고보다는 감수성으로 통일된 주체의 성장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제재의 목록이라 할 수 있다.¹⁴⁾

이것은 대부분의 작품들이 ‘읽고 느끼는’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본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확보된 교재 속에서 나타나는 교수·학습의 모습은 시구에 대한 풀이 정도가 전부이다. 오늘날 볼 수 있는 구조적인 분석이나 주제적인 정리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당시 이루어진 현대시교육의 모습은 어려운 표현이나 단어들을 설명하는 정도에서, 그것도 동어반복적인 풀이에서 그쳤다는 정도로만 정리될 뿐이다.¹⁵⁾

둘째 기준은 역설적으로 첫째 기준 외에는 별다른 기준을 적용시키지

13) 해당 작가는 *로 표시하였다.

14)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 국어과 교사들의 자질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수영이나 김춘수의 작품들을 소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또한 작품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5) 유치환의 「원수의 피로 씻는 지역」이 수록된 교재에서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극명한 예는 ‘지역’이라는 시어에 밑줄을 긋고 ‘땅의 구역’이라는 메모를 덧붙이거나, ‘부조(父祖)’라는 시어에 밑줄을 긋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라는 풀이를 적어 놓은 것이다.

않는다는 정도의 기준이다. 다시 말해, 작품 선택의 기준이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김기림이나 정지용의 작품들이 한국전쟁기에 발간된 교재에는 수록되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첫째 기준에 의해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김소월의 「금잔디」나 「기회」, 신석정의 「돌」, 「들길에 서서」, 「산유화」 등이 정부 수립기의 교재에만 잠시 수록되었을 뿐이라는 것은 작품 선정 기준의 궁핍함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V. 맺음말

시교육의 전개 과정을 보면 광복 이후 10년 정도의 시교육 형성기를 거치면서 현대시교육의 기본 담론이 완성된다. 시교육은 이러한 담론의 바탕 위에서 그것을 개신하고 재구조화하는 작업이며, 그런 점에서 공식 교육과정의 시작되기 전의 이 기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대시교육의 형성 과정에서 주목할 사항은 ‘현대시 교육’에서 정작 ‘현대시’가 온전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에서 ‘현대시’라는 용어의 본격적인 사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당시의 교육이 현대시를 기반으로 한 근대성에 대해 주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시교육은 수신/훈육과 자연에 대한 서정적 태도에만 집중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민족적인 정서와 정체성의 전달에만 집중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쟁 시기까지도 이어진다. 세계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 보다는 주어진 인식의 틀을 전파하는 일이 보다 우선시되었던 상황에서, 근대성은 학습자를 대상화하는 맥락에서만 작용했으며 세계에 대한 주체의 개인 의식이라는 측면까지는 다루지 못했다.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진행된 현대시교육은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아무리 당겨 잡아도 3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현

대시교육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다. 교훈성과 자연 서정에 민족 이데올로기를 부가하는 것으로는 근대성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분석주의 이론으로 무장한 4차 교육과정기에 와서야 시와 근대성에 대한 자각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그 또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한국 현대시의 총체성을 담보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결국 한국 현대시교육은 시의 본성과 근대성에 대한 자각이라는 화두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형성,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시교육에 관한 담론은 그러한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었음을 알게 된다.*

* 본 논문은 2011. 6. 30. 투고되었으며, 2011. 7. 10. 심사가 시작되어 2011. 7.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자료〉

- 강진호·허재영 편(2010), 『조선어독본』 1~5, 제이앤씨.
- 조선어학회 편(1946), 『중등국어교본』 상, 군정청문교부.
- 조선어학회 편(1947), 『중등국어교본』 중, 군정청문교부.
- 조선어학회 편(1947), 『중등국어교본』 하, 군정청문교부.
- 문교부(1948), 『중등국어』 1,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 문교부(1948), 『중등국어』 2,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 문교부(1948), 『중등국어』 3,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 문교부(1950), 『중등국어』 ①,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 문교부(1949), 『중등국어』 II,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 문교부(1949), 『중등국어』 III,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 문교부(1949), 『중등국어』 IV,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 문교부(1950), 『중등국어』 V,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 김병제 편(1948), 『신편 중등국어』 1·2·3, 고려서적주식회사.
- 이병기 편(1949), 『중등국어』 1~6, 금룡 도서주식회사.
- 조지훈 편(1949), 『(문교부 검정) 고등국어』 2, 한길사.
- 문교부(1952), 『중등 국어』 1-1, 합동도서주식회사.
- 문교부(1952), 『중등 국어』 1-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문교부(1953), 『중등 국어』 2-II, 박문출판사.
- 문교부(1952), 『중등 국어』 3-I, 민중서관.
- 문교부(1952), 『중등 국어』 3-II,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 문교부(1953), 『중학 국어』 1-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문교부(1954), 『중학 국어』 1-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문교부(1953), 『중학 국어』 2-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문교부(1954), 『중학 국어』 2-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문교부(1954), 『중학 국어』 3-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문교부(1953), 『고등 국어』 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문교부(판권지 유실), 『고등 국어』 2.
- 문교부(1954), 『고등 국어』 3,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연구 논저〉

- 김기립(1994), 『시론』, 앞선책.
- 김양선(2011), “『중등국어교본』이 구성한 해방의 기억 : 수록된 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교육학회 제58회 학술대회 자료집.
- 김윤식(1991), “6·25전쟁문학 : 세대론의 시각”, 『문학사와 비평』 1, 문학사와비평학회.
- 김윤식(1992), 『근대시와 인식』, 시와시학사.
- 김재홍(1996), 『한국현대시사1』, 한국문연.
- 김재홍(1998), 『한국 현대시의 사적 탐구』, 일지사.
- 남민우(2005), “미군정기 국어교육계의 구조와 의미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4집, 국어교육학회.
- 민현식 외(2007), 『미래를 여는 국어교육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봉배(1987a), 『한국국어교육전사(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박봉배(1987b), 『한국국어교육전사(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서동수(2006), “한국전쟁기 문학담론 연구 : 반공텍스트의 기원과 교백의 정치학”,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 오세영 외(2007),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 윤여탁 외(2006), 『국어교육 10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도한(2004), “한국전쟁기 전쟁시의 체험성 연구”, 『한국시문학』 15, 한국시문학회.
- 정재찬(1996), “현대시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창환(2010), 『한국 현대시의 분석과 전망』, 한국문화사
- 천정환(2003), 『근대의 책 읽기 :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 허재영(2009), 『일제강점기 교과서 정책과 조선어과 교과서』, 도서출판 경진.

<초록>

한국 현대시교육의 형성 과정 연구

민재원 · 김창원

공식적인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시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1차 교육과정기 이후이다. 그러나 그 이전 시기인 일제강점기나 교수요목기에도 현대시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교육되었다. 본 연구는 1차 교육과정기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현대시교육을 살펴봄으로써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교육의 기층 논리를 밝히고자 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시교육은 대체로 수신/훈육의 목적에 종속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이는 식민 당국의 정치적인 목적에 교육이 종속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해방 이후에는 민족·국가의 주체성 및 정서 함양이라는 차원에서 시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수립 이후에 좌파 계열 시인의 작품이 교과서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6·25 전쟁 시기에도 시교육은 계속 진행되었는데, 전쟁 시기라고 해서 전쟁과 관련된 작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서정적 작품들이 계속해서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국가 교육과정기 이전의 시교육은 세계라는 대상에 대한 주체의 반성적 사유를 촉발하기보다는 교훈의 전달이나 친자연적 정서의 계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기의 시교육은 이러한 맥락 위에서 출발하였다.

【핵심어】 시교육사, 일제강점기, 해방기, 정부 수립기, 한국전쟁기

<Abstract>

Historical Studies on the Foundation of Korean Modern Poetry Education

Min, Jae-won · Kim, Chang-won

Before the period of 1st National Curriculum Standards(NCS's), including the colonial period, liberation period and 'teaching syllabus' period, all textbooks contained modern poetries. This paper, I discussed the logical basis of modern poetry education in period of NCS's by investigating on poetry education before the NCS's.

Poetry education in colonial period taught the moral training and discipline. The education by the time was designed for colonial purpose. After the liberation, poetry education focused on the national consciousness and emotionality while politically left poetries were excluded. Poetry education continued during the Korean War. However, the war itself did not have so much influence over the poetries educated in the textbook ; lyrical poetries were still the mainstream.

Poetry Education before the NCS's tried to teach the morality or nature-friendly concepts rather than having critical views over the world. The modern poetry education of NCS's started on this basis.

【Key words】 History of Korean Modern Poetry Education, Colonial Period, Liberation Period, Government-establishing Period, Period of the Korean War